

# 돌아오는 '1박2일' 인기도 돌아올까

### 장고 끝 연내 복귀 선언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 “논란 불식 책임있는 모습 신선한 시도 필요”



KBS 2TV 간판 예능 '1박2일' 시즌3 멤버들.

정준영 불법촬영 파문과 김준호·차태현 내기골프 논란에 강제로 장기 휴업한 KBS 2TV 간판 예능 '1박2일'이 장고 끝에 연내 새 시즌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전 시즌 제작진이 반강제로 물러나고 출연진 구성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시즌 제작과 안착까지는 수많은 산이 놓여 있다. '1박2일' 공백기 예능 분야에서 새로운 수확이 없었던 가운데 새 시즌이 전화위복이 될지, 혹은 성과 없는 악전고투로 남을지 주목된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작진이다. 선장은 일단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피투게더', '연애가 중계' 등에 참여한 방식이 PD로 낙점됐다.

다만 작가진과 다른 스태프의 참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송가에 따르면 새로운 작가와 VJ 등을 구하는 게 녹록지 않은 분위기라 새 시즌 제작에 착수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을 무대로 하는 야외 버라이어티 '1박2일'의 경우 이전 시즌을 거듭하며 누적된 지역과 주민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쥔 작가가진이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준영 불법촬영 파문과 김준호·차태현 내기골프 논란을 겪으며 이전 시즌 제작진이 그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고, 이에 대한 내부 관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 사실이냐.

예능 특성상 언제든 '출연자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지만, 방송사가 사건사고와 연관이 없는 제작진조차도 보호해주

지 못한다는 게 이번 사례로 증명된 셈이 때문이다.

여기에 전 시즌 PD들을 따라 타 방송사로 이적한 스태프가 워낙 많아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청자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맞닥뜨릴 출연진 구성도 큰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시즌1부터 함께한 김준민과 지난 시즌 인턴으로 합류한 이용진의 잔류가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선택하겠다는 설이 나왔지만 그조차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명 한 명 후보가 발표될 때마다 안팎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같은 여러 리스크에도 KBS가 '1박2일'의 복귀를 선언한 것은 내·외부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단 지난 3월 몰카 단속방(플레이메카를 공유한 단체 채팅방)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 멤버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으며 방송가와 완전히 격리됐다.

김준호와 차태현의 경우 사건 발생 때부터 동정론이 없지 않았던 데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수습됐다. 내부적으로는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이

뤄졌다. '1박2일' 공백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반전을 꾀했지만 '1박2일'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1박2일' 소환을 위한 내부적 분위기도 확보한 셈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새롭게 돌아오는 '1박2일'이 성공하려면 프로그램이 논란을 딛고 일어설 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논란 때문에 당분간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부정적인 이슈도 불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솔한 언행으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면 그때 시청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1박2일'의 기존 포맷을 뛰어넘는 도전이 이집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평론가는 "특정 여행지가 가서 게임을 하는 모습 등 프로그램이 익숙해진 면이 있다. 내용과 인물 모두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보아야 한다"며 "기존 멤버를 출연시켜 뻘 얘기를 하기보다 한 번도 메인에 들어온 적 없었던 여성, 외국인 등을 섭외하는 것도 고려해볼 작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JTBC '조선훈담공작소 꽃파당'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SBS TV '배가본드'



tvN '날 녹여주오'

## 추석 이후 ... 안방극장 '드라마 대전'

### 지상파 월화극 폐지 기류 속 수목·주말극 경쟁 치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드라마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며 추석 후 기존 제약을 위한 킬링 콘텐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최근 지상파들이 월화극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선 가운데 추석 후에도 한동안은 수목극과 주말극에서 화려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 후 가장 먼저 첫발을 떼는 것은 JTBC 월화극 '조선훈담공작소 꽃파당'이다. '성균관 스캔들', '화랑' 등 계보 이어 '꽃도령 사극'으로 김민재, 서지훈, 박지훈, 변우석이 주역으로 나서 젊은 여성 시청자들을 출몰 예정이다.

18일에는 무려 세 편 수목극이 첫발을 떼다. 추석 전 방영한 SBS TV '닥터탐정', KBS 2TV '저스티스', OCN '미스터 기간제'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새 작품들은 각자 다른 장르로 시청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로맨틱코미디 장르의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은 공효진-강하늘이라는 조합만으로도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여성들의 '워너비' 공효진

과, 제대 후 더 늙해진 강하늘이 보여 줄 현실 로맨스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극본도 '쌈, 마이웨이'를 히트시킨 임상춘 작가가 맡았다.

SBS TV '시크릿 부티크'는 김선아와 정미희, 멋진 두 여자가 투톱으로 나선다. 강남 목욕탕 세신사에서 재벌가 하녀로, 정·재계 비선 실세로 거듭 성장한 제·장이 국제도시개발이란 황금알을 손에 쥐고 어제 자리를 노리려는 내용이 김선아의 전작 '꿈위있는 그녀'를 떠올리게도 한다.

OCN '달리는 조사관'은 '인권증진위원회'라는 독특한 배경을 내세웠다. 이요원과 최귀화가 주연을 맡아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못한 채 억울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나가는 과정을 사람 냄새나게 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제목과 캐스팅만으로도 '블록버스터' 기운을 물신 풍기는 SBS TV 금토극 '배가본드'가 처음 방송한다. 약 25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이승기와 수지가 출연하는 첩보액션극으로, 후반 작업 등을 위해 몇 차례 편성

이 연기됐던 터라 팬들의 기다림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같은 날 돌아온 tvN '블금' 시리즈, '쌈니다 천리마마트'도 전파를 탄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대마그림의 '유배지'로 불리는 천리마마트를 기사화해서 키러는 엘리트 점장과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사장의 코믹극이다. 김병철과 이동휘, 코미디에 최적화된 캐스팅도 눈길을 끈다.

25일에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tvN '청일전자 미쓰리'가 첫 방송한다. 헤리가 '응답하라 1988' 이후 부진을 딛고 연기자로서 재기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28일에는 제대간 지창욱의 복귀작 tvN 주말극 '날 녹여주오'를 선보인다.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씨가 20년 후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극으로, 지창욱과 원진아뿐만 아니라 지창욱과 윤세아의 나이 차를 뛰어넘는 호흡이 기대를 모은다. 극본은 '흥행 불패' 백미경 작가가 맡았다.

9월 마지막날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코 사극 KBS 2TV '조선로코-녹두전'이 전파를 탄다. 장동윤, 김소현, 강태오 등 청춘스타가 주연으로 나선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를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미니디(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차부속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뽀뽀모 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2010 MBC 경영평가 결과보고 35 구해줘! 홈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를아 부탁해	30 글로브24 55 추석기획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가족과 함께 보는 대화의 희망 스페셜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추석특집 안녕하세요 스페셜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스포츠특선	4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가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07:15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30 페파 피그(재)
07:45 페파 피그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내 마음의 안전기지	19:00 스파이더맨
08:30 띠띠뽀 띠띠뽀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9:00 출동! 슈퍼윙스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15 마사와 곰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윈더블스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25 마사와 곰(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3:35 내 마음의 안전기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9일 (음 8월 11일 己酉)

☎010-9790-8237

36년생 어렵고 한 일이 우연히도 잘 들어맞을 수다. 48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60년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발전적이다. 72년생 일회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84년생 실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 되어야만 한다. 96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子

37년생 확실히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49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1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73년생 의도적으로라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다. 85년생 아슬아슬하게 통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97년생 금둔도 안락이 있느니라.



丑

38년생 피망 흘려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헛수고이다. 50년생 별 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62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해 하는 이로운이 보인다. 74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라. 86년생 유종의 미가 종하니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98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寅

39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51년생 그 어떠한 이익이 따르다 하더라도 정도가 아니라면 경지 말라. 63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75년생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 87년생 선함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99년생 점점 더 경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卯

40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52년생 현황으로는 미진한 비가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여야한다. 64년생 완화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76년생 아무리 노력 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으니 포기하라. 88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00년생 방심하다가가는 금력을 면치 못 할 것이다.



辰

41년생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보인다. 53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65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77년생 궁극중이 명쾌하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지금은 좋고 나쁠을 따질 계제가 아니니 우선, 확실히 추진하고 볼 일이다. 01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국이



巳

30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42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54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66년생 아예 여지를 두지 않는 편이 낫겠다. 78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90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니라.



午

31년생 불안정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43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55년생 현상 유지나 정치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67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79년생 대의를 위해서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91년생 부분적이지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未

32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4년생 숨쉬를 발휘한다면 크게 호평을 받을 수 있다. 56년생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68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80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라 말라. 92년생 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라.



申

33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 나리라. 45년생 당해 문제가 별 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57년생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69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81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후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93년생 본의 아닌 언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酉

34년생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기대 된다. 46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8년생 고단하더라도 꼭 잡고 한결같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생상호 관련 관계까지 감안할 이 나을 것이다. 82년생 실행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셈이다. 94년생 앞진대 달린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戌

35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47년생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59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71년생 상호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95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할 것이다.



亥